

기술형 입찰,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전산화로 서류 제출 60% 이상 감소... 중소규모 공사 심의 기간도 단축(10일→7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하여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 (기술형 입찰)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2일 (화)부터 12월 22일(금)까지 행정예고 한다.
-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하여,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 까지 10일 소요되었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하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현 (044-201-3561)
		담당자	사무관	박유서 (044-201-3564)
			사무관	윤상원 (044-201-3570)
			주무관	배규민 (044-201-3565)

참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기술형 입찰 제출 서류 간소화

- (핵심 서류) 설계심의 시 활용도가 높은 설계보고서, 단면도, 지반조사 보고서 등 자료는 기존과 같이 종이 문서로 제출
- (기타 서류) 심의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참고적 성격이 강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은 전자파일로 제출

구 분		핵심서류	기타서류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제출 보고서	- 설계 보고서, 설계 요약보고서 -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 지반조사보고서(토질보고서) - 터널해석보고서(터널 존재 시)	-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 공사관리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 구조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제출 방법	- 종이 문서 제출	- 전자파일 제출
기술제안 입찰	제출 보고서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요약서 - 기술제안 설명자료(발표자료)	- 부속서류,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 종이 문서 제출	- 전자파일 제출

② 중·소규모 공사(300억원 미만) 설계심의 기간 단축

-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 개최까지의 소요 기간 개선(10→7일)

[별표4] 현행			[별표4] 개정안		
구분	주요내용	일시	구분	주요내용	일시
소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선정	평가 회의 10일전	소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선정	평가 회의 7일전